

# 국제원유가격 동향과 전망

- 에너지경제연구원 -

내년도 국제유가는 금년보다 다소 높은 17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올해 유가(이하 OPEC 평균현물원유가격)의 최저수준은 연초의 배럴당 14.39달러(1/6)이었다. 이 가격수준은 '88年末의 13.65달러(12/30)보다 1달러이상 오른 것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대부분의 예상을 넘어서는 높은 것이었다. 그 후 油價는 수요증대(2.6%), 잇달은 유전사고(연간 40만b/d 감소효과), OPEC(석유수출국기구)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非OPEC의 감산(2/4분기 20만b/d 내외), 공산권의 수출정체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여 배럴당 16~17달러를 중심으로 한 안정세를 지속해오고 있다. 올해의 최고가격은 북해 코모란트 유전사고직후의 18.79달러(4/21)였으며, 연간 평균가격은 16.4달러로 추정된다.

최근의 유가는 17달러 수준에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데, 이 추세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86차 OPEC 총회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. 이번 OPEC 총회결과 역시 최대의 관건인 쿼타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결이 모색되지 않은 채 50~100만 b/d의 쿼타증대분을 기존의 쿼타점유율에 따라 배분하는 편법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.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질적 합의실패를 뜻하는 것이며, 총회직후 1달러 내외의 油價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OPEC결속력 강화에 대한 단기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油價는 평균적으로 금년보다 다소 높은 17달러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. 금년에 이어 내년도도 국제유가는 OPEC 결속력이 아니라 견실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 변동범위는 배럴당 15~20달러로서 금년보다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.

① 平均油價 상승 : 내년도 자유세계 석유소비자는 53.6백만b/d로서 2.5%의 견실한 증가세가 예상된다. 그 결과 OPEC原油에 대한 수요도 금년보다 80만b/d가 늘어나고, OPEC의 시장점유율(NGL, 콘덴세이트 포함)도 '89년의 44.7%에서 '90년에는 45.1%로 확대될 전망이다.

② 油價불안정성 확대 : OPEC은 현재 2,330만b/d내외의 원유를 생산중인데 이 수준은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다소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특히 내년 1/4분기의 정상적인 對OPEC 원유수요는 2,250만 b/d이내로 예상되기 때문에 OPEC은 이번 총회에서 쿼타규모는 높더라도 생산은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. OPEC이 이번 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하거나 생산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/4분기 油價는 약세를 면할 수 없다. 더우기 계절적 非需期인 2/4분기에 OPEC가 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우 油價하락폭은

더욱 커질 수 있다.

한편 내년 하반기는 OPEC 원유에 대한 수요증대로 가격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. 내년도 유가불안성의 가장 큰 요인은 非OPEC 및 공산권 수출 동향이다. 금년에 빈발하였던 사고의 근본적 요인은 시설노후화·매장량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과도한 생산촉진·내부 분규(소련·중국·콜롬비아)등 구조적 문제였으

사고로 인한 공급장애 또는 非OPEC의 협력생산 등이 병행될 경우 유가는 20달러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. (石油代替, 소비절약, 재고방출 등)도 적극화될 것이므로 18달러이상의 유가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장시간 지속될 수는 없다.

④하한가의 존재 : 15달러는 사우디의 정치적 최저가격(즉, 사우디가 체제유지에 필요한 石油收入을 확보하기 위한 유가수준)으로 알려져 있다. 또 OPEC 감시위원회는 15달러이하의 가격수준이 계속될 경우, 회의를 소집하여 유가회복 노력을 강구기로 되어 있다. 소비국의 재고수요 촉진, OPEC의 생산자제노력 강화가 예상되는 것도 이 가격수준이다.

끝으로 내년의 국제유가는 '86년 또는 '88년 4/4分期와 같은 油價붕괴(Price Collapse)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. 현재 잉여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(300만b/d 내외), 이라크(150만b/d 내외) 정도인데, 이들 두 산유국은 최근의 유가수준에 만족, 증산을 자제하고 있다. 이들 두 국가가 증산경쟁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油價가 15달러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OPEC內 異見심화로 회복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다. 그러나 과거의 OPEC행태로 유추해볼 때 OPEC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절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. ♣

기관별 1990년 유가전망

	OPEC 유가	비 고
에너지경제연구원	\$ 17	\$ 15~20
DOE/USA	\$ 17.80	
WEFA	\$ 16.50	\$ 10-20 : 15% 15-18 : 60% 18-20 : 25%
DRI	\$ 17.3	
日本에너지경제연구소	\$ 18	(고) \$ 19 (저) \$ 17

며 이들 요인들은 내년에도 잠재적 공급장애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

③상한가의 존재 : OPEC의 적절한 생산자제, 우발적

<에너지동향>

□ 관 보 □

◎동력자원부고시 제89-66호

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

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고시(동력자원부고시 제89-10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9년 12월 2일  
동력자원부 장관

제1조(수입금의 징수금액) 및 제3조(석유의 종류에 따른 수입금의 차등징수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수입금의 징수금액)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납부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(프로판, 부탄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은 제외한다)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.28\$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조(석유의 종류에 따른 수입금의 차등징수) 프로판 및 부탄수입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 1메트릭톤당 미합중국통화55\$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.

- 부 칙 -

이 고시는 1989년12월2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